

CURRICULUM VITAE

이 유

근무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전주대학교 음악학과 객원교수
Email: reasonable2u@hanmail.net

학 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작곡 전공 졸업(석사)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졸업(학사)

경 력

KBS 주최 창작 작품공모 동상(은상없는) 수상(1993)
전주 세계소리축제 개막공연 기획(2001)
전주 국제 영화제 음악담당(2000, 2002)
다수의 작곡 발표회 및 CD 출판
동아일보,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등 음악평론
전주시립교향악단, 군산시립예술단 등 음악회 해설
대구교육연수원, 광주교육연수원, 전남교육연수원 등 강의
전주 KBS 클래식 FM 프로그램 진행(1992-2012)
전남대학교, 군산대학교, 원광대학교 등의 강사 및 전주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현 전주대학교 음악대학 객원교수



뇌를 깨우는 음악 감상법

이 유

전주대학교 음악학과 객원교수

1. 융합형 전문가 vs 전공형 전문가

하워드 가드너(Howard Gardner)는 미래 인재가 갖추어야 할 능력은 플렉스퍼티즈(flexpertise)라고 했다. 이는 융통성(flexibility)과 전문성(expertise)의 합성어로 배운 지식을 여러 다른 상황에서 융통성 있게 창조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2. 음악과 인간의 정서

시대가 발전할수록 음악의 효용가치와 사용범위가 점점 높아지고, 음악을 이용한 치료와 연구를 거듭해 의학과 교육, 광고, 게임, 영화 등 많은 분야에서 음악이 사용되고 있다. 개인적인 음악 체험은 개인의 기억에 큰 흔적을 남기며 언제라도 의식 밖으로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음악을 들으면서 연상되는 경험, 기억 등 상기되는 모든 반응은 심리 반응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음악은 카타르시스 효과를 일으켜 조화적인 상태로 회복시키는 기능이 있다.

3. 클래식 이펙트

‘클래식 이펙트’는 소리와 클래식 음악을 통해 인간이 타고난 청각적 능력을 계발하여 인간의 신체적 건강, 감성적 행복, 창조성을 북돋우고,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미치는 효과이다. 클래식이 지닌 유용성에 관해서는 오래 전부터 거론되었지만, 임상 의학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1993년이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고든 쇼(Gordon Shaw) 박사와 위스콘신 대학교의 로셔(Frances Rauscher) 박사가 전문 과학 잡지 ‘네이처’에 게재한 논문 ‘모차르트 이펙트’에 의해서이다.

4. 뇌를 깨우는 음악 감상법

작곡가의 생애나 가치관, 연주자의 스타일이나 삶을 안다면 음악 감상에 새로운 즐거움을 찾을 수 있지만, 그 것이 클래식 음악과 친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 1) 요네야마 기미히로의 '클래식, 나의 뇌를 깨우다'
- 2) 알렉산더 보(Alexander Waugh)의 '새로운 클래식 감상법'
- 3) 관심 분야와 클래식의 연관성
- 4) 에피소드 클래식

참 고 문 헌

- 1) 알렉산더 보. 심선화 역. 새로운 클래식 감상법. 청림출판. 2003
- 2) 로저 니른버그. 김규태역. 클래식 리더십(CEO 마에스트로에게 길을 묻다). 예쎬. 2009
- 3) 요네야마 기미히로. 김은하역. 클래식, 나의 뇌를 깨우다. 예인. 2011



MEMO

